



철학은 어떻게 정리정돈을 돕는가

:정리되지 않는 인생을 위한 철학의 조언

이나 슈미트 지음 | 장혜경 옮김

출간일 : 2012년 8월 22일

정가 : 14,000원, 페이지 : 280쪽

철학, 불확실한 삶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다

삶의 무질서를 웃으며 껴안는 철학적 방법

우리는 늘 주변의 사물을, 생각과 관계를, 세상을 정리하며 질서를 잡으려고 한다. 삶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하루하루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짝 짜여진 질서에는 오히려 숨이 막힌다. 이러한 삶의 질서와 무질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철학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철학 상담실을 운영하며 철학적 사고를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독일의 철학 카운슬러 이나 슈미트는 질서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완벽한 질서를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의 내적 질서를 찾을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은 무질서를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음으로서 진정한 삶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지적 모험이다. 고대의 철학자들부터 현대의 과학이론에 이르기까지 카오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도전을 통해 독자는 불확실한 인생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책 소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외적 질서는 거대한 내적 무질서를 해결하려는 절망의 노력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113쪽) 하지만 정리정돈을 다룬 실용서들이 넘쳐나고, 정리의 기술을 알려주는 컨설팅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외부의 질서에 기대서라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완벽한 삶의 질서를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강박과 절망적인 노력은 그대로다. 노력해도 도무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무질서, 현대인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삶에 질서를 부여하고 싶다면 지저분한 책상과 어지러운 창고를 청소하는 것 이상의 도전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감정과 경험을 시험대에 올리고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철학은 소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철학은 스스로에 대해 캐묻고 해명하고 가면을 벗게 해주며,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질서는 자신의 가능성을 생각 없이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윤나게 닦는 것 이상의 것’이며 이 ‘이상’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질서가 행복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10쪽)

개인파 일상의 문제를 철학적 사고로 풀어내다

철학 카운슬러 이나 슈미트가 전하는 창의적 카오스와 사고의 기술!

철학상담실을 운영하며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철학적 사고를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저자 이나 슈미트는 철학 카운슬링을 통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에서도 저자는 머릿속에서부터 책상 위까지, 넘쳐나는 생각과 물건들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철학적 문제해결을 제안하고 인도한다.

“완벽한 질서가 주어진다면 당신을 둘러싼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무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없을까? 질서와 무질서를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자는 인류 지성들의 위대한 통찰과 고뇌 사이로 독자들을 조심스레 초대한다. 독자에게 ‘당신이 고민하는 질서의 의미, 소크라테스도 니체도 함께 고민했다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고 차근차근 설명하며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문제를 대하는 새로운 태도를 소개한다. 스스로 답을 찾고,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방법을 독자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게 후원하는 지혜로운 철학자처럼 말이다.

자신의 사례를 흥미롭게 예로 들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에서부터 현대 뇌과학자들의 통찰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저자의 철학 카운슬링은 무척 흥미롭다.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독자라면, 저자의 안내와 함께 삶의 질서와 무질서를 새롭게 바라보는 철학 카운슬링을 이 책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현대 양자물리학까지

불확실한 미래, 무질서한 인생을 정면돌파하는 용감한 지적 여행

“한번 질서는 영원한 질서!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은가? 그런 질서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질서의 필수 조건은 일체의 살아 움직이는 요소들의 부재다.”(27쪽)

질서가 잡히고, 깨끗이 정리만 된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 현대인들의 믿음은 틀렸다.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질서에 대한 오래된 환상과 신화를 깨트린다. 그러기 위해서 철학사와 인류 지성사의 거장들을 소환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스토아 학파는 각기 삶의 무질서를 세계에 대한 불가해성, ‘선’으로 가는 길, 이성적인 삶이라고 보았다. 니체, 하이데거, 키르케고르의 철학을 통해서도 우리는 카오스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 현대 과학의 새로운 세계관을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경제학자 조지프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의 의미를 자세히 탐색하고 하이젠베르크가 일으킨 양자역학을 자세히 소개하며 (44쪽) 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을 타파한다.

생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이 말한 ‘엘랑 비탈(생의 약동)’은 저자의 전체적인 의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생의 약동을 느끼고, 이를 통해 ‘창조적 기다림’을 배울 수 있다면 삶의 무질서가 그리 끔찍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90쪽~92쪽)

철학은 책상과 머리에서 어떻게 정리정돈을 돕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나만의 질서를 만드는 법이다”

왜 사람들은 물건을 버리지 못할까? 사람들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릴 마음을 내지 못할 뿐이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자신을 설득하면서 말이다.(119쪽) 변화에 필요한 용기는 잡동사니 한가운데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균형을 찾을 때 비로소 ‘본래’ 나에게 맞는 조직과 규칙, 모델과 원칙이 탄생한다. 새로운 관점, 감각이라는 도구, 자신에 대한 확신과 같은 내적 기술을 통해 (2장) 아름다움, 창의적 사고, 놀이의 기쁨, 대화 속 질서라는 철학적 삶을 실천할 수 있다.

이 책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오스라는 가능성을 사랑하며 삶의 무질서를 꺼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질서를 통해 내면의 확신에 이를 수 있다. 카오스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하다. 다만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다.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저자는 이 지적인 여정을 함께 한다면 “카오스의 한가운데에서도 삶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265쪽)

2. 저자 소개

이나 슈미트 Ina Schmidt

독일 튀네부르크 대학교에서 문화학을 전공하였고 하이데거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함부르크의 라인벡에서 철학 상담실 덴크레우메Denkraeume를 운영하면서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철학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개선시키고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의 첫 책 《생각하면 행복해지나? - 철학적 고찰》(2010)은 철학적 상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화제작이다. 현재 여러 잡지와 신문에 저널을 기고하는 칼럼니스트이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철학 책을 집필하고 있다.

윤진이 장혜경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생으로 독일 하노버에서 공부했다.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옮긴 책으로 《강한 여자의 낭만적 딜레마》, 《사랑의 코드》, 《오디세이 3000》, 《피의 문화사》, 《오노 요코》, 《식물동화》, 《이타주의자가 지배한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등 다수의 문학서와 교양서를 우리말로 옮겼다.

3. 목차

서문 Ⅱ 삶은 왜 늘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질까

1장 사물의 질서 : 우리를 매혹시키고 숨 막히게 하는 그것

2장 무질서의 기술 : 내면의 질서를 건설하는 철학적 방법

3장 철학적인 삶의 실천 : 창의적인 카오스가 만드는 세상의 아름다움

4장 행복의 무대 : 내 삶에 어떻게 질서를 부여할까

후기와 감사의 글

참고문헌

4. 책 속에서

* 어찌면 바로 거기에 비밀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질서는 자신의 가능성을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윤나게 닦는 것 이상의 것이다. 질서는 책장이나 장롱을 조립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면 이 ‘이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때 비로소 질서가 행복과도 관련을 맺게 될지 모를 일이다. (9쪽)

* 철학은 깨닫고 해명하고 가면을 벗기는 데는 전문가다. 한 젊은 여성이 상담을 한 후 나에게 '뇌 청소'에 도움을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이 새로운 생각의 질서 덕분에 그 전에는 왜곡되고 뒤엉켰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이다. 물론 결정은 누구나 혼자서 내리는 것이지만 철학적 사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17쪽)

* 그러니 아무리 사는 게 바빠도 잠깐 걸음을 멈추고 고민을 해보자. 어쩌면 문제는 우리의 관리 능력이나 우리의 게으름, 가난이나 창의력 부족에 있는 게 아닐지 모른다. 문제는 우리의 서랍과 구조 안에 넣어둘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사물들은 우리의 질서 관념에 저항하고 이죽거리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장만한 틀을 부순다. 예쁘게 닦아놓았건, 새로 장만한 건, 구석에 먼지를 쓰고 있건, 질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실제로 모든 것을 '질서화'하기 위해 사물이, 저 바깥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24쪽)

* 코스모스적 질서의 관념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며 카오스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나아가 그 카오스의 활용법을 배워야 한다는 니체의 말이 옳다면 어쩔 것인가? 어쩌면 결국엔 우리 삶에 약간의 카오스를 유지하는 것이, 카오스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른다. (55쪽)

*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긴장 완화 기술들은 대부분 원래의 목표보다는 그저 특정한 기술을 통해 조금 더 능률을 올리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결국엔 긴장 완화를 지속적인 긴장의 일부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긴장을 실제의 힘이 되게 하는 반대 극이 사라지는 것이다. 철학자 한병철이 《피로 사회》에서 긍정성의 일방적인 힘이라고 한탄하였던 그것이다. (191쪽)

* 따라서 질서를 창조하고 싶다면 전혀 다른 방향을 택해야 한다. '예술적' 관점을 취해야 하며, 우리 안에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무언가 울림을 주는 사물, 우리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사물을 찾아 나서야 한다. 당장 거실을 아틀리에로, 부엌을 창의적 실험실로 개조하라는 - 물론 그래도 된다. 그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 말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실험, 그런 반항, 그런 예술적 소풍의 공간이 있는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완벽하게 짜인 일상의 스케줄 표나 해야 할 일의 목록에는 그런 자리가 너무 적다. 퇴근 후의 TV 시청이나 공식적인 토론 역시 사물들의 예술적 상호작용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214쪽)

* 썩 매력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제아무리 명확한 질서를 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모든 형태의 질서에 근간이 되는 카오스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틀에 끼울 수도 있고, 길을 개척할 수도 있으며, 그것이 다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정해진 공간을 선물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지만 단 하나, 카오스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

다. 카오스는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는 모든 일의 잠재력이다. 그런 가능성이 모두 현실이 될 수 없다 해도 그런 가능성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253쪽)

5. <디 벨트 Die Welt> 인터뷰

이나 슈미트의 질서 개념은 사물의 정리정돈을 훨씬 넘어선다. 그녀는 질서를 “우리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조화의 느낌을 선사하는 연관관계”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녀가 자주 인식하는 것은 “특정 형태의 질서에 대한 고착, 제작 가능성의 사상, 척도로서의 이상”이다. 왜 그러하며, 왜 달라질 수는 없는지 저자는 이 책 《철학은 어떻게 정리정돈을 돕는가》에서 살피고 있다.

정리정돈을 위한 방법론으로 철학적인 질문들이 적합한 이유에 대해 저자는 “사물들을 연관관계에서 풀어내어서 현 상태를 관찰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철학은 뒤를 캐묻는 전문가요, 설명하고 가면을 벗기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란단다. 그렇지만 너무 이론적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녀는 세 아이의 엄마답게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헛간은 남들이 보기엔 엉망진창이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기가 막히게 잘서가 잡힌 공간인 것이다.

물론 그녀의 철학적 고찰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프리드리히 니체, 카를 야스퍼스, 마틴 하이데거 등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의 신선한 연구 결과도 인용된다. 예를 들어 다들 찬양하는 멀티태스킹이 우리의 바람과 달리 효율의 극대화가 아니라 총체적 탈진이나 부분적 우둔함을 일으킨다는 두뇌 연구가 에른스트 피벨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

그녀가 말하는 이 책의 역할은 이렇다. “정통 처세서과 달리 나는 질서란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으로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는 것, 관점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를 위해 이나 슈미트는 철학사로 멀리 되돌아간다. 주체와 객체로 세상을 나누는 르네 데카르트의 이분법을 그녀는 너무 낡았다고 주장한다. “우리 자신이 항상 우리 주변 세상의 일부이며 사물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말이다.

그녀는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삶을 관찰하라고 말한다. 유명한 사상가의 표현을 빌면 그것은 “창조적 기다림”, “조건 없는 인식”, “탄력적 비규정성”이다. 물론 그녀는 가능한 인식이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저항 작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과거의 상담 활동을 통해 “상황의 드라마가 관점의 변화를 통해 완화될 수 있음”을 직접 체험한 바 있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인간에게겐 경계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자유는 경계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그녀의 주장은 양극단 사이의 삶이라는 플라톤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

그녀에게 질문을 하나 던진다. 그녀의 질서 상황은 어떠한지? 그녀는 웃으며 말한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지복도 24시간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인생의 과제인 거지요.” (2012.1.1)